



인터뷰 이호성 무안군의회 의장

무안군의회가 전반기를 마무리하고 후반기 의정활동에 본격 돌입했다. 이호성 제9대 무안군의회 후반기 의장은 만장일치로 추대됐으며 군민과 소통, 책임있는 견제와 감시를 이끌어갔다고 천명했다. 앞으로 2년간 무안군의 회를 이끌어갈 이호성 의장을 광주매일신문과 광주매일TV가 만났다.

“군민 행복과 안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제9대 무안군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됐다. 당선 소감은?

먼저, 저에게 제9대 무안군의회 후반기 의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준 군민들과 동료 의원들에게 깊이 감사하다. 앞으로 의장으로서 막중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 겸손한 자세로 군민들과 함께하겠다.

더불어 군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 언제나 군민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 후반기 2년 동안 의장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미래 무안의 발전 방향에 대해 군민과 함께 고민하고 소통해 군민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무안군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으로써, 군의 지속 성장을 견인할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농어촌 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

셋째, 지역 현안에 더 기민하게 반응하겠다.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반대와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 등 당면 현안에 주저하거나 방관하지 않고, 항상 군민과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앞장서서 군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민선 8기 무안군 행정을 평가한다면?

민선 8기 무안군은 지난 2년 동안 안정적인 군정 운영을 목표로 얻어붙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편의 증진 및 각종 생활 인프라 확충에 힘써왔다.



망을 앞가리는 광주 군공항의 무안 이전은 결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군공항 이전으로 인해 무안 군민은 소음피해뿐만 아니라 지역 산업 기반 붕괴로 인해 생존권 자체가 위협받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이전은 별개 사안으로, 광주 군공항 이전이 민간공항 이전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무안국제공항은 그동안 숏한 어려움 속에서도 연간 이용객이 꾸준히 증가해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핵심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무안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광주시는 당초 약속했던 대로 광주 민간공항을 무안으로 이전하고, 군공항 이전을 반대급부로 내세우는 행위를 멈춰야 한다.

나아가 군공항 이전사업 자체가 원칙적으로 국가고유사무인 만큼 기존의 추진 방식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할 것이다.

저는 그동안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 반대 특별 위원장으로서 끊임없이 군 공항 이전 반대 입장을 펼쳐 왔으며, 의회 차원에서 군민들의 뜻을 결집하고 대변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무안군의회는 지금껏 그래왔듯 앞으로도 군민과 지역사회의 역량을 결집해 모두가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반대투쟁을 이어가도록 함께하겠다.

▲지역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무안은 당면한 지역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서남권 중심도시로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시점을 맞았다. 무안군의회는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은 의회상을 구현하고 더 살기 좋은 무안, 군민에게 희망과 믿음을 주는 의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군민들도 그동안 보내준 성원과 함께 지역을 사랑하고 무안의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지켜봐 주길 바라며, 군민 모두가 무안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동반자로서 함께해 줄 것을 당부한다.

/무안=김상호 기자

풍부한 경험·역량 바탕...군민 신뢰·감동 의회 실현
군공항·목포의대 등 당면 현안 군민 의견 대면 최선
철저한 행정사무감사 등 집행부 견제·감시 역할 수행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한 복안이 있다면?

제9대 후반기는 그동안 쌓아 온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군민들에게 신뢰와 감동을 줄 수 있는 의정활동을 약속한다.

첫째, 의회의 존재가치가 군민에게 있음을 명심하고, 군민의 고충과 아픔을 살피고 군민과 동행하는 소통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

둘째, 정책을 만들어 제시하는 능동적인 정책 의회로 거듭나겠다. 군민의 생활 안정과 민생 해결을 위해 의회 본연의 자치입법 활동을 강화함

무안연꽃축제 등의 축제와 지역상권을 연계해 특화상권을 조성함으로써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살리기에 기여했으며, 다른 한 편으로는 사회복지 분야 예산의 확대 편성을 통해 군민에게 희망을 주고 다양한 계층의 군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무안형 복지 정책을 시행했다.

가장 높이 평가할 만한 점은 도농 간 균형발전 에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다.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별 중심지를 문화·복지의 발전 거점으로 육성하고, 무안군

북한문화센터 건립과 무안보건소 이전사업, 지역주민 역량강화 사업 등을 시행해 더욱 많은 군민이 문화·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얼마 전 민선 8기 공약 이행률이 70%에 가깝게 보고된 만큼, 앞으로도 무안군은 지역 경제 발전과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해 주길 바라며, 무안군의회도 상호 협력 파트너로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어떤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집행부를 감시·견제할 생각인지?

무안군의회는 무안군 행정의 현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본연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를 통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 집행부에 시정하도록 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

특히 철저한 행정사무감사와 조사를 실시해 무안군 행정의 전반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적절한 대안을 제시해 바로잡겠다.

또한 군정 질문을 통해 주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군정의 추진 사항을 수시로 파악해 행정의 투명성과 목적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결과만을 추궁하기보다는 과정에서부터 적극 참여해 진정한 군민의 행복과 무안군 발전을 위해 올바르게 판단하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군공항 이전 관련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이 라고 생각하는지?

무안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짓밟고 군민의 희



프로필

▲이호성 제9대 무안군의회 후반기 의장(52) ▲목포대 경영행정대학원 경영학과 졸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무안군협의회 자문위원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사회복지 특별위원장 ▲前 무안군 사회복지사협회장 ▲前 무안군 종합사회복지관장

광주매일 TV kjdaily.com (영상뉴스)

방수제 · 바닥재 · 혼화제 · 천연 황토 코팅제

건물 보수제 전문 생산업체

아직까지 방수로 고민하십니까? 기술이 필요없습니다.

방수! 바닥! 직접 공사하세요!

적용현장 및 시공범위

옥상, 외벽, 지하실, 공장바닥, 주차장, 흙집, 물탱크, 양어장, 수영장, 화장실 타일, 기와집, 내구성 및 평활성을 요구하는 현장, 기타 방수를 요하는 모든 건축물

생산 품목

[DK-301] 강력접착 도막 방수제 / 드림탄²
[DK-303] 상도코팅방수제(녹색, 회색)셀프탄
[DK-305] 무색침투도막방수제 / 드림데칼³
[DK-307] 균열 보수제 / 다막스
[DK-306] 수용성 투명 방수제 / 탑코팅
[DK-308] 천연황토코팅제 / 황토리
[DK-5000] 광택증진 & 오염방지코팅제 / 오염스톱

특징

- 빗물은 막고 습기는 내보낸다
- 기술이 필요없다
- 숨을 쉬기 때문에 들뜨지 않는다
- 경제적이다
- 무독성 무기질 친환경 방수제다
- 습윤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
- 미끄럼, 방지기능을 한다
- 욕실 및 화장실 타일을 뜯지 않고도 할 수 있다
- 특허 인증 신기술 공법이다
- 소비자가 인정했다

※전화 문의시 방수·바닥재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 구입시 시의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시중에 검증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케미칼 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업체입니다.

특허청

특허번호

DREAM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

드림케미칼코리아

DREAMCHEMICAL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chemicalkorea.com

CMYK